2018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2018 대만 국가도서관 85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참석 결과보고서

2018. 4. 18(수) - 4. 22(일)

국립중앙도서관

목 차

Ⅰ. 출장개요 ····· 1

Ⅱ. 출장내용 ····· 2

1. 대만 국가도서관 국제컨퍼런스 개요 및 일정
2. 국제컨퍼런스 주제발표 주요 내용
3. 대만 국립고궁박물원 방문 및 회의
4. 주요활동사진

Ⅲ. 성과 및 시사점 ····· 8

Ⅳ. 첨부자료 ····· 9

Ⅰ 출장개요

1. 목적

- ㅇ 대만 국가도서관 개관 85주년 기념행사로 추진하는 국제컨퍼런스 참석을 통해 양국 간 우호협력 강화
- ㅇ 고문헌을 다루는 기관(도서관, 박물관 및 대학 등)의 전문가 및 학자들과의 토론 및 경험 공유를 통해 상호 협력 방안 모색

2. 일시/장소 : 2018.4.18.(수) ~ 4.22.(일), 4박 5일 / 대만(타이베이)

3. 출장자 : 이형호 디지털자료운영부장, 안혜경 학예연구사

4. 방문기관 : 대만 국가도서관, 국립고궁박물원

5. 주요성과

- ㅇ '클라우드 시대의 새로운 문화 유산-고서에 가치를 더하고 그를 해석하기(雲世紀下的新傳奇 古籍加値與銓釋)' 국제컨퍼런스 참여와 주제발표를 통해 국제 도서관계에서의 한국 위상 제고
- ㅇ 해외 참석 기관과 고문헌 및 디지털화 관련 업무 논의를 통한 국제 협력 강화와 관련 분야 전문성 모색

< 대만 국가도서관 개요 >

1. 연혁
   - 1933년 국립중앙도서관 설립
   - 1937년 중일 전쟁의 영향으로 충칭으로 이전, 1946년 난징으로 돌아옴
   - 1948년 국공 내전 중 보관하고 있던 서적 13만권을 대만으로 이송
   - 1950년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가 난징 국립중앙도서관을 난징도서관이라 개칭
   - 1954년 국립중앙도서관이 타이베이에서 복관, 1996년 국가도서관으로 개칭
2. 조직 : 館長(Director General), 副館長(Deputy Director General) / 圖書館事業發展組(Librarianship Development Division), 館藏發展及書目管理組(Collection Development and Bibliography Managemetnt Division), 智識服務組(Knowledge Services Division), 特藏文獻組(Special Collections Division), 數位知識系統組(Digital Knowledge System Division), 國際合作組(International Cooperation Division), 秘書室(General Affairs and Secretariant Office), 人事室(Persinnel Office), 正風室(Civil Service Ethics Office), 主計室(Accounting Office) / 漢學研究中心(Center for Chinese Studies), 國際標準書號中心(ISBN Center), 書目資訊中心(Bibliographic Information Center), 出版中心(Publications Center)
3. 직원/예산 : 총178명 / 약167억원
4. 장서 : 단행본 3,852,000책, 정기간행물 28,961종, 비도서 1,378,588건
   온라인자료 : 346,115종

Ⅱ 출장내용

일자	시간	업무수행내용	비고
4.18(수)	10:35-12:05 14:30-18:00	■ 인천출발 타이베이 도착 ■ 대만 국가도서관 개관 85주년 기념 전시개막식 참석 ■ 도서관 견학	鄭基田(대만국가 도서관 국제협력과)
4.19(목)	전일	**■ 대만 국가도서관 개관 85주년 국제컨퍼런스 참석 및 주제발표** - 고문헌의 보존 및 문화전파 - 고문헌의 재인쇄 및 재창조 - 고문헌의 정리 및 지식의 구축 - 고문헌을 위한 자원 및 통합서비스 ■ 폐회식	曾淑賢(대만국가 도서관 관장), 이형호(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자료운영부장) 등 발표자 10명
4.20(금)	전일	**■ 대만 국립고궁박물원 특별방문** **: 전시관람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원탁토론** - 출판, 전시, 보존, 자료공유 관련 ■ 시내투어(용산사,야시장)	林正儀 (국립고궁박물원장) 宋兆霖 (도서문헌처장) 등
4.21(토)	전일	**■ 문화탐방** - 대만 이란현(宜蘭縣) 소재 국립전통 예술센터, 동산강, 난초화원 등 방문	林能山(대만국가 도서관 국제협력과) 呂姿玲(대만국가 도서관 특장문헌조)
4.22(일)	07:45-09:00 13:25-17:05	■ 해외기관 참석자 조찬회의 : 조사 및 디지털화 사업 관련 의견교환 ■ 타이베이 출발, 인천 도착	미국 버클리대 영국국립도서관 일본 정가당문고

1. 대만 국가도서관 국제컨퍼런스 개요 및 일정

일정	주요 내용
09:00 ~ 12:20	· 개회사(曾淑賢, 대만 국가도서관 관장) · 환영사(Diana Lee, Pan Pacific Ocean Group 이사) · 귀빈소개 및 사진촬영
	· 1부 : 고문헌의 보존 및 문화전파
	· **주제 1: 일본 정가당문고 및 동양문고의 고문헌 보존과 이용** 河野元昭(일본 정가당문고미술관 관장) · **주제 2: 디지털화를 통한 중국 서적의 보존 및 문화 전파** : **버클리의 경험** Peter Zhou(미국 버클리대학도서관 부관장)
	· 2부 : 고문헌의 재인쇄 및 재창조
	· **주제 3: 대만 국가도서관 소장 고서의 부가 가치와 그의 재탄생** 曾淑賢(대만 국가도서관 관장) · **주제 4: 국립고궁박물원 전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응용** 馮明珠(전 국립고궁박물원장)
13:30 ~ 17:50	**· 3부 : 고문헌의 정리 및 지식의 구축**
	· **주제 5: 서찰 문헌 및 청조 학문 연구** 陳鴻森(대만 중앙연구원 역사어언연구소 연구원) · **주제 6: 대만중앙연구원의 한적전자문헌자료DB에 대한 회고와 전망** 劉錚雲(대만 중앙연구원 역사어언연구소 연구원) · **주제 7: 고서 정리 시 원문 해석 관련 이슈** 張寶三(대만 포광대학 중문학 및 응용학과 교수)
	· 4부 : 고문헌을 위한 자원 및 통합서비스
	· **주제 8: 이야기 지도를 통한 중국 지방지 연구 가이드 사례** 邵東方(미국 의회도서관 아시아부서장) · **주제 9: 영국 국립도서관의 살아있는 지식: 디지털 시대의 고대 문서 및 역사자료** Luisa Mengoni(영국 국립도서관 아시아 아프리카 장서 부서장) · **주제 10: 고문헌 디지털화 사업과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KORCIS)** 이형호(한국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자료운영부장)
	· 폐막식(Roger Pan, Pan Pacific Group 회장)

2. 국제컨퍼런스 주제발표 주요 내용

□ 1부 : 고문헌의 보존 및 문화전파

ㅇ **주제 1: 일본 정가당문고 및 동양문고의 고문헌 보존과 이용**

河野元昭(코노 모토아키, 일본 정가당문고미술관 관장)

ㅇ **발표내용**

- 일본 정가당문고(靜嘉堂文庫, Seikado Bunko)와 동양문고(東洋文庫)는 각각 미쓰비시(三菱)의 2대, 3대 사장에 의해 설립된 문고로 한중일의 고서적 및 서양의 귀중본을 상당수 소장하고 있음
- 정가당문고에는 약 20만권의 고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그 중 25종이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음. 도서관은 연구자에게만 개방하며, 자료 훼손 등의 이유로 소장 자료에 대한 디지털화는 하지 않고, 일부 자료는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 보관하고 있음
- 정가당문고에서는 송원(宋元)시대 판본을 모은 『정가당문고송원판도록(靜嘉堂文庫宋元版圖錄)』을 1992년 출간한 바 있으며, 후에 이 도록에 근거한 마이크로필름 및 온라인판을 제작, 유료 판매중임
- 동양문고는 동양학 분야 세계 5대 도서관 중 하나로 간주되며, 상당수의 희귀 고서, 그림 및 문서에 대해 디지털화를 완료하여 인터넷상에 서비스 제공하고 있음
- 주요 소장 자료로는 설립자인 이와사키 히사야(岩崎久彌)가 모은 이와사키문고(岩崎文庫), 1917년 조지 어니스트 모리슨으로부터 구입한 장서인 모리슨 컬렉션(Morrison Collection)이 있음

ㅇ **주제 2: 디지털화를 통한 중국 서적의 보존 및 문화 전파 : 버클리의 경험**

Peter Zhou(미국 UC버클리대학도서관 부관장)

ㅇ **발표내용**

-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Berkeley)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C.V.Starr East Asian Library)은 한중일을 비롯하여 동아시아 관련 자료를 90만종 이상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임
- 19세기 이래 많은 중국 고서가 서양으로 전래되어 현지의 도서관에서 수집되었음. 서적을 통한 중국의 학문과 문화가 서양에 전파된 것임
- 버클리대도서관에서 추진한 중국 송원 판본 및 고대 중국 필사자료의

디지털화, 1950년 일본의 미쓰이문고(三井文庫)로부터 구입한 중국 가업당(嘉業堂) 자료(중국 장서가 劉承幹의 장서)의 디지털화, 청나라 후기 신소설의 디지털화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고문헌의 이용과 디지털보존에 적극 힘쓰고 있음

□ 2부 : 고문헌의 재인쇄 및 재창조

ㅇ **주제 3: 대만 국가도서관 소장 고서의 부가 가치와 그의 재탄생**

曾淑賢(대만 국가도서관 관장)

ㅇ **발표내용**

- 대만 국가도서관 소장 선본 고문헌은 12,900종 135,000책에 달함. 일반 고서(普通本線裝書)는 12만책 소장. 국보급 문화재는 40종 303책이며, 중요문화재는 249종 2,875책을 소장하고 있음
- 종래에는 고문헌이 보존과 복원의 대상이었지만 디지털시대에 디지털화를 통해 더 많은 활용과 유통을 경험할 수 있음
- 중국 고문헌의 디지털화를 위해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내 '고적 및 특장문헌 자원(古籍與特藏文獻資源, http://rbook2.ncl.edu.tw)' 에서 수집한 고문헌 원문을 확인할 수 있음
- 국가도서관은 소장 희귀본의 영인본 제작사업, 강연과 전시, 선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독서 경험을 창조하고 고문헌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음
- 또한 고문헌 자료의 특징과 이미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상품을 개발,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ㅇ **주제 4: 국립고궁박물원 전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응용**

馮明珠(전 국립고궁박물원장)

ㅇ **발표내용**

- 국립고궁박물원 도서문헌처에는 20만권의 선본고문헌과 40만건의 청대 당안(檔案)을 소장하고 있음
- 고궁박물원 소장 고문헌, 명청대 지도, 청대 당안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선본고적목록자료고(善本古籍目錄資料庫, 관내이용)' 등 주제별 11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사례 소개
- 디지털화 작업 완료된 자료의 출판, 영인본 제작 등 관련 사업 소개

□ 3부 : 고문헌의 정리 및 지식의 구축

ㅇ 주제 5: 서찰 문헌 및 청조 학문 연구

陳鴻森(대만 중앙연구원 역사어언연구소 연구원)

ㅇ 발표내용

- 서찰(書札)은 청대 학자들이 학술교류에 있어 주요 매개체였음. 청대 학자들의 문집을 살펴보면 서찰은 독자적인 장르를 형성하고 있었음. 내용은 국정운영에서 개인적 경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함
- 서찰은 후대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서지 정보의 자원이 되고 있으며, 수정을 가하지 않은 일차 사료로 가치가 있음
- 다양한 서찰을 통해 특정 인물의 생몰연대 및 성격 고증, 서적 편찬의 의도 및 경위, 지적재산권 문제 등의 사례를 확인함

ㅇ 주제 6: 대만 중앙연구원의 한적전자문헌자료DB에 대한 회고와 전망

劉錚雲(대만 중앙연구원 역사어언연구소 연구원)

ㅇ 발표내용

- '한적전자문헌자료고(漢籍電子文獻資料庫, Scripta Sinica, http://hanchi.ihp.sinica.edu.tw)'는 대만 중앙연구원에서 중국학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모아 1984년 구축한 원문 데이터베이스임
- 역대 전적 1,097종을 경사자집(經史子集)으로 분류하여 수록하였고, OCR 판독 등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음. 디지털화 중 나타날 수 있는 오탈자, 결실, 장서인 판독 오류 등은 지속적인 본문 대조 및 보정작업을 통해 수정하고 있음

ㅇ 주제 7: 고서 정리 시 원문 해석 관련 이슈

張寶三(대만 포광대학 중문학 및 응용학과 교수)

ㅇ 발표내용

- 고서의 활용 및 가치 증대를 위해서 고서의 정리 및 이해는 필수요건이며, 이를 위해 텍스트의 정확한 해석은 중요한 기초 작업임
- 고서를 구성하는 요소인 서명, 권수, 작자, 판본, 인명, 인용, 체재 등에 있어 각 항목별로 잘못 기재된 사례를 살펴봄으로 서지 작성에 주의를 요하였으며 정확한 원문 해석의 중요성에 대해 논함

□ 4부 : 고문헌을 위한 자원 및 통합서비스

ㅇ 주제 8: 이야기 지도를 통한 중국 지방지 연구 가이드 사례

邵東方(미국 의회도서관 아시아부서장)

ㅇ 발표내용

- 미국 의회도서관에서는 2017년 지리지도부, 아시아부, 선본부 등이 공동 참여하여 연구자들을 위한 이야기 지도(Story Map)을 개발함. 이는 국회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중국 지방지(地方誌) 연구를 위한 연구 가이드임

ㅇ 주제 9: 영국 국립도서관의 살아있는 지식: 디지털 시대의 고대 문서 및 역사자료

Luisa Mengoni(영국 국립도서관 아시아 아프리카 장서 부서장)

ㅇ 발표내용

- 영국 국립도서관은 지적 유산을 모든 사람들이 연구와 영감, 재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지식'이라는 비전 아래 필사본, 고서의 온라인 접근을 대폭 확대하고,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대중 참여프로그램 개발 등을 강화함
- 3D 프린팅, 마이크로 CT 스캐닝, OCR 등의 기법 도입한 사례 소개

ㅇ 주제 10: 고문헌 디지털화 사업과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KORCIS)

이형호(한국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자료운영부장)

ㅇ 발표내용

- 한국 국립중앙도서관은 귀중한 전적 문화유산의 보존과 후세 전승을 위하여 1995년부터 문화재급 귀중본 및 한국 고문헌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음
- 또한 해외로 유출된 한국 고문헌의 수집을 위해 조사와 영인 수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민간에 소장된 고문헌을 발굴하여 정리, 보존을 지원하고 디지털화를 실시하고 있음
- 조사된 서지목록과 원문 이미지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축한 종합목록 DB인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KORCIS, http://www.nl.go.kr/korcis)'에 업로드 하여 국내외 모든 이용자들에게 무료 서비스하고 있음
- 향후 모바일 기반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고품질 디지털서비스 제공 예정

3. 대만 국립고궁박물원 방문 및 회의

< 대만 국립고궁박물원 개요 >

1. **현황** : 중화민국 행정원 소속 국립박물관으로 세계 4대 박물관에 속함
2. **연혁**
 - 1925년 북경에서 고궁박물원 개관
 - 1928년 국민당 정부가 북벌 성공으로 고궁박물원을 접수
 - 1933년 일본군에 의해 산해관이 함락되자 소장품을 상해로 옮김
 -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고궁박물원 북경으로 복귀
 - 1948년 국공 내전이 국민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대만으로 유물을 옮김
 - 1965년 타이베이에서 재개관
3. **조직** : 총 12개부처(7처5실)
 院長(Director), 副院長(Deputy Directors) / 主任秘書(Secretary General), 器物處(Department of Antiquities), 書畫處(Department of Painting and Calligraphy), 圖書文獻處(Department of Rare Books and Historical Documents), 登錄保存處(Department of Registration and Conservation), 文創行銷處(Department of Cultural Creativity and Marketing), 教育展資處(Department of Education, Exhibition and Information Services), 南院處(Department of the Southern Branch Museum Affairs), 安全管理室(Security Management Office), 秘書室(Secretariat and General Affairs Office), 人事室(Human Resources Office), 主計室(BAS Office), 政風室(Civil Service Ethics Office)
4. **소장작품수** : 697,490점

□ 고궁박물원 전시실 특별관람

□ 업무 회의 참석자

- 한국 국립중앙도서관 이형호 디지털자료운영부장, 일본 정가당문고미술관 河野元昭 관장, 미국 의회도서관 邵東方 아시아 부서장, 영국 국립도서관 Luisa Mengoni 아시아 아프리카 장서 부서장, 미국 UC버클리대학도서관 Peter Zhou 부관장, 대만 국립고궁박물원 宋兆霖 도서문헌처장 등

□ 업무 회의 내용

- 대만 국립고궁박물원과의 자료공유, 출판, 전시 방안 논의
- 한국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화 사업, 보존 사업 소개
- 국립고궁박물원 소장 한국 고문헌에 대한 조사 및 디지털화 제안, 추후 구체적 협의 진행하기로 함

4. 주요 활동 사진

<대만 국가도서관 85주년 전시개막식>

<대만 국가도서관 85주년 전시개막식>

<국제컨퍼런스 발표자>

<국제컨퍼런스 회의장 전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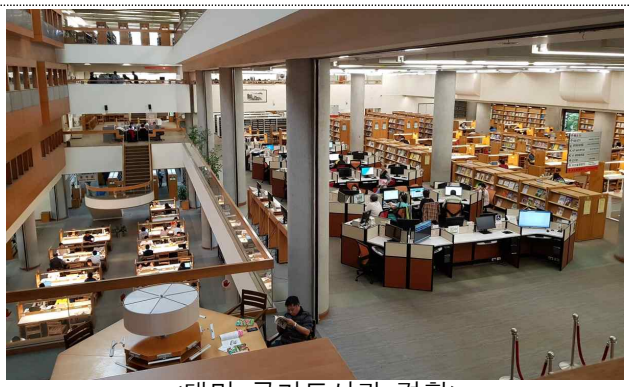
<국제컨퍼런스 참석 귀빈 촬영>

<이형호 디지털자료운영부장 주제 발표>

<이형호 디지털자료운영부장 주제 발표>

<발표자 토론 및 질의응답>

<대만 국가도서관 전경>



<대만 국가도서관 견학>

<선본서실(고문헌실) 방문>

<선본서실(고문헌실) 전시관람>

<대만 국립고궁박물원 방문>

<대만 국립고궁박물원 업무회의>

<일본,미국(2),영국,한국 5개 기관 대표>

<이란현(宜蘭縣) 국립전통예술센터 문화탐방>

Ⅲ 성과 및 시사점

- ㅇ 대만 국가도서관 개관 85주년 기념행사로 추진하는 국제컨퍼런스에 참석, 주제발표를 통해 양국 간 우호협력 강화의 계기 마련
- ㅇ 고문헌을 다루는 해외 기관(도서관, 박물관 및 대학 등)의 전문가 및 학자들과의 토론 및 경험 공유를 통해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음
- ㅇ 참가자들은 한국 국립중앙도서관의 고문헌 디지털화 사업과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KORCIS)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대만 국가도서관은 우리 도서관 소장 중국 고문헌을 대상으로 조사 및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할 의향을 밝힘
- ㅇ 국립중앙도서관은 대만 국가도서관 소장 한국 고문헌 300여종 중 50종을 2005년에 조사하여 마이크로필름으로 영인 수집하였으며, 향후 추가조사 및 디지털화에 대한 추진을 검토할 계획임
- ㅇ 국립중앙도서관은 해외에서 참가한 미국 의회도서관, 버클리대도서관, 영국 국립도서관, 일본 정가당문고 소장 한국 고문헌에 대해 서지조사 및 디지털화 영인 수집을 완료하였음. 90년대초 복사 및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일부 수집한 일본 정가당문고의 경우, 추가 자료에 대해 디지털화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ㅇ 국내 소재 고문헌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디지털화의 대표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 활성화
- ㅇ 이를 위해 한국고전적보존협의회를 비롯한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 한국국학진흥원 등 고문헌 보존 및 디지털화 현황 파악 및 협력 강화 필요
- ㅇ 고문헌 디지털화를 위한 관계기관·전문가 세미나 개최 추진
- ㅇ 대만국가도서관의 고문헌의 문화상품화 방안은 향후 도서관의 문화사업 추진 시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